

「특별강연」

우리나라 자원식물과 남북한 식물이름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강 병 화

I. 우리나라 자원식물

지구상에는 약 20만종의 식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종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 5000종의 식물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고등식물은 우리나라의 자생식물과 특산식물을 비롯하여 재배하는 작물과 귀화식물 및 외래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외래식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발생하는 식물에 대한 농업적인 측면의 연구는 작물과 자원으로서의 이용 가치가 있는 식물 즉 자원식물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원식물에 대한 연구는 대상이 되는 식물 종류의 수가 방대하여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자원식물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물생태학과 식물분류학의 발전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체계적인 조사가 식물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들어서이다.

정태현은 1965년 ‘한국의 동식물도감-식물편’을 통해 3,051종을 보고하였고, 이창복은 1969년 우리나라의 관속식물 183과 4,594종에서 식용자원 478종과 약용자원 640종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자원식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고 특히 농업적인 측면에서 자원식물의 연구는 더욱 그러하였다. 자원식물은 그 자체의 직접적인 이용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재배되는 작물에는 결핍된 여러 종류의 기능성 식품성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식품 수요의 다각화로 식품의 새로운 성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식물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자원식물은 직접적인 이용 외에도 작물 육종의 소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확보 차원에서도 자원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식물은 자생하는 식물체를 직접 수집하거나 재배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육종의 재료와 같이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식물은 자원으로써 지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식물 중 우리가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원식물(資源植物)이라 하며 용도별로 보면 식용(食用), 약용(藥用), 유료용(油料用), 기호용(嗜好用), 당료용(糖料用), 향료용(香料用), 염료용(染料用), 사료용(飼料用), 녹비용(綠肥用), 퇴비용(堆肥用), 밀원용(蜜源用), 방풍용(防風用), 관상용(觀賞用), 목재용(木材用), 연료용(燃料用), 공업용(工業用), 사방용(砂防用) 등 너무나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식물을 자원식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식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서 이용이 가능하며 아직까지 정확한 용도 및 이용법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종이 많다. 그러나 자원식물의 가치는 현재의 이용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잠재적인 이

용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서 최근 들어 주목받는 자생(自生)하는 야생화(野生花)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측하기 힘든 것이었으며, 약용으로 쓰이는 자원식물의 개발은 여러 가지 분석법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식물은 수질오염(水質汚染)의 정화(淨化)나 대기오염(大氣汚染)을 방지(防止)하는데 이용(利用)될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生態環境)의 보존(保存)과 자연환경(自然環境)의 보호(保護)에도 식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단행본으로 출판된 식물도감에 수록된 자원식물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박만규(1946)는 우리나라식물명감에 201科 1,102屬 3,347種(50亞種, 1012變種, 168品種)의 식물을 수록하였다.
2. Nakai(1952)는 한국식물개요에서 한국의 식물종은 223科 968屬 4,191種(3,176種, 841變種, 174品種)으로 발표하였고, 그 중에서 한국의 특산종은 11屬 1,116種(642種, 402變種, 72品種)이라고 수록하였다.
3. 정태현(1965)은 한국동식물도감 제5권 목초분류(문교부)에 종자식물 201科 2,890種, 양치식물 20科 161種 등의 총 221科 3,051種을 수록하였다.
4. 이덕봉(1974)은 한국동식물도감 제15권 유용식물(문교부)에 식용 362種, 기호용 5種, 약용 309種, 공업용 71種, 섬유용 14種, 호료용 1種, 사료용 21種, 녹비용 2種, 유료용 7種, 향료용 77種, 염료용 15種 등을 수록하였다.
5. 이영노(1978)는 한국동식물도감 제18권 계절식물(문교부)에서 우리나라 개화식물 2,856種을 월별로 분류하면 12월(1種) = 1월(1種) < 11월(20種) < 2월(26種) < 10월(86種) < 3월(109種) < 4월(391種) < 9월(403種) < 5월(942種) < 6월(1,057種) < 8월(1,171種) < 7월(1,245種)의 순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우리나라 개화식물 2,237種의花色은 빨강(275種) < 푸른색(613種) < 흰색(640種) < 노랑색(716種)의 순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6. 이창복(1979)은 대한식물도감에 190科 3,879種의 식물을 수록하였다. 이들을 생태적으로 분류하면 초본류가 2,704種이고 목본류가 1,175種이다. 초본류 중에서 일년생 430種, 이년생 208種, 다년생 2,066種이고, 목본류는 관목 688種과 교목 487種이다.
7. 송주택등(1989)은 한국식물대보감(한국자원식물연구소)에 종자식물 179科 5,083種, 양치식물 14科 293種 등의 총 193科 5,376種을 수록하였고, 각 식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식용 2,339種, 약용 3,108種, 사료용 859種, 밀원용 712種, 관상용 3,249種, 공업용 1,135種, 퇴비용 520種, 사방용 216種 등으로 기재하였다.
8. 박수현(1995)은 한국귀화식물원색도감(일조각)에 30科 176種, 5變種, 1品種의 귀화식물을 수록하였고, 2001년에는 한국귀화식물원색도감 보유편(일조각)에 24科 84種, 1變種의 귀화식물을 추가 수록하였다.
9. 김태정(1996)은 한국의 자원식물(서울대학교 출판부)에 종자식물 159科 2,296種, 양치식물 14科 76種 등의 총 173科 2,372種을 수록하였다.
10. 이영노(1996)는 원색한국식물도감(교학사)에 종자식물만 168科 3,637種을 수록하였다.

11. 강병화·심상인(1997)은 한국자원식물명 총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 남북한에서 발간된 식물도감의 학명을 수록하고 남북한 식물이름을 비교하였다.
12. 안덕균(1998)은 한국본초도감(교학사)에 1,003 種類의 한약명에 168科 1,420種의 식물을 수록하였으며, 약용으로 쓰이는 식물의 과별 분포를 보면 국화과(109種), 장미과(87種), 백합과(77種), 콩과(62種), 미나리아재비과(51種), 산형과(46種), 꿀풀과(44種), 화본과(33種), 마디풀과(26種), 제비꽃과(25種), 인동과(23種), 범의귀과(23種), 현삼과(22種), 물푸레나무과(21種), 십자화과(20種), 석죽과(20種), 운향과(19種), 양귀비과(19種), 두릅나무과(19種), 대극과(17種) 등 20과에 763종이 속하였고, 기타 148과에 657種의 식물이 속하였다.
13. 1999년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약용식물지 I, II, III(임록재, 평양농업출판사)”에는 180科 847種이 수록되었으며, 大部分의 藥用植物이 草本植物이었다.
14. 고경식·전의식(2003)은 한국의 야생식물(일진사)에 1,929 종류의 야생식물과 재배식물을 수록하였다.
15. 한국자생식물협회에서 1999년부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생식물의 생산농가수는 37(1999)→63(2000)→80(2001)으로 증가하고, 생산면적은 204천평(1999)→564천평(2000)→614천평(2001)→856천평(2002)으로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12,092천본(1999)→38,697천본(2000)→69,548천본(2001)→69,226천본(2002)으로 증가하였다.
16. 2002년에는 벌개미취(7,598천본), 붓꽃(5,186천본), 흰붓꽃(4,890천본), 꽃창포(3,493천본), 비비추(2,762천본), 맥문동(1,979천본), 구절초(1,939천본), 원추리(1,887천본), 노랑꽃창포(1,589천본), 장뇌삼(1,350천본), 석산(1,259천본), 범부채(1,191천본), 부처꽃(995천본), 옥잠화(840천본), 담쟁이덩굴(749천본), 참나리(743천본), 감국(687천본), 돌단풍(642천본), 기린초(638천본), 섬초롱꽃(617천본), 갈대(610천본), 두메부추(597천본), 매발톱꽃(581천본), 송악(571천본), 섬기린초(541천본), 산수국(512천본), 슬패랭이꽃(508천본), 백리향(503천본), 해국(480천본), 줄사철나무(468천본), 물억새(457천본), 할미꽃(447천본), 창포(443천본), 층꽃나무(422천본), 삼지구엽초(408천본), 나도풍란(403천본), 은방울꽃(402천본) 등 532초종 75,203천본이 생산되었다.

II. 남북한 식물이름

1945년 광복이 되자마자 남북이 분단된 후 58년이 지났다. 그 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각각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과학 분야 중 식물학분야에서도 용어의 표현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여러 연구논문과 단행본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물학의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식물의 이름이 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필자는 식물분류학자가 아닌 농학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각 식물도감에 따라 같은 식물에도 이름이 달라 식별에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여러 종류의 식물도감에서 사용한 학명과 우리 이름을 망라하고, 북한에서 발행한 ‘식물원색도감’(김현삼 외. 1988)을 비교하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한국자원식물명

총람'(강병화·심상인, 1997)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반인들이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북한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문헌이 새로이 입수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새로 도입된 식물과 대학교재에 기재된 식물을 추가하여 남북한 식물명을 비교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식물도감이 발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식물명은 향문사에서 발행한 '대한식물도감'(이창복, 1979)과 교학사에서 발행한 '원색한국식물도감'(이영노, 1996)에 기재된 초종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문헌을 참조하였다. 귀화식물은 일조각에서 발행한 '한국귀화식물원색도감'(박수현, 1995, 2001-보유편)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문헌을 참조하였다. 재배식물은 한국작물학회에서 발행한 '작물학용어집'(한국작물학회, 1995)과 향문사에서 발행한 '원예학용어집'(한국원예학회, 1993)에 기재된 식물명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문헌을 참조하였다. '식물도감'에 수록된 3,986초종에 재배식물 801초종과 귀화식물 490초종을 추가하고 중복된 식물명을 제외하여 남한에서 통용되는 4,620초종을 기재하였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식물명은 최근에 평양의 과학기술출판사에서 발간한 '조선식물지증보판'(임록재 외, 2000)에 기재된 초종을 기본으로 하고, 평양의 과학출판사에서 발간한 '조선식물지'(임록재 외, 1979), 평양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발간한 '식물원색도감'(김현삼 외, 1988), 평양의 과학출판사에서 발간한 '식물도감'(도봉섭·임록재, 1988), 평양농업출판사에서 발간한 '조선약용식물지'(임록재, 1999) 등의 여러 참고문헌을 참조하였다.

우리나라 식물이름에 대한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에서 발간된 식물학에 관련된 참고문헌에 기재된 학명을 기초로 이름을 비교하였다. 남한에서 조사된 4,620초종의 학명에 북한문헌의 학명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한에서 발간된 식물도감에 수록되어 있는 초종과 최근의 귀화식물 및 대학교재의 재배식물을 취합한 결과는 총 4,620초종이었고, 그 중에서 재배식물이 801초종이며 귀화식물이 490초종이었다.
2. 재배식물 801초종 중에서 남북한 이름이 같은 경우는 198초종으로 24.7%이었으며, 이름이 다른 경우는 192초종으로 24.0%이었고, 북한명이 없는 초종이 411종으로 51.3%이었다.
3. 귀화식물 490초종 중에서 남북한 이름이 같은 경우는 102초종으로 20.8%이었으며, 이름이 다른 경우는 116초종으로 23.7%이었고, 북한명이 없는 초종이 272종으로 55.5%이었다.
4. 식물도감에 기재된 3,986초종 중에서 남북한 이름이 같은 경우는 1,580초종으로 39.6%이었으며, 이름이 다른 경우는 1,782초종으로 44.7%이었고, 북한명이 없는 초종이 624종으로 15.7%이었다.
5. 조사한 남한의 식물 4,620초종 중에서 남북한 이름이 같은 경우는 1,601초종으로 34.7%이었으며, 이름이 다른 경우는 1,856초종으로 40.2%이었고, 북한명이 없는 초종이 1,163종으로 25.2%이었다.

참고문헌

- 강병화 · 심상인. 1997. 한국자원식물명 총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경식 · 전의식. 2003. 한국의 야생식물. 일진사.
김영근. 2001. 자생식물의 생산현황. 한국자생식물협회.
김태정. 1996. 한국의 자원식물 전5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현삼 외. 1988. 식물원색도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평양).
도봉섭 · 임록재. 1988. 식물도감. 과학출판사(평양).
박수현. 1995. 한국귀화식물원색도감. 일조각.
박수현. 2001. 한국귀화식물원색도감(보유편). 일조각.
송주택 · 정현배 · 김병우 · 진희성. 1989. 한국식물대보감. 한국자원식물연구소
안덕균. 1998. 한국본초도감. 교학사.
이덕봉. 1974. 한국동식물도감. 제15권 유용식물편. 문교부.
이영노. 1976. 한국동식물도감. 제18권 식물편(계절식물). 문교부.
이영노. 1996. 원색한국식물도감. 교학사.
이창복. 1979.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임록재 외. 1979. 조선식물지. 과학출판사(평양).
임록재 외. 2000. 조선식물지 증보판. 과학기술출판사(평양).
임록재. 1999. 조선약용식물지. 평양농업출판사.
정태현. 1965. 한국동식물도감. 제5권 식물편(목초분류). 문교부.
한국원예학회. 1993. 원예학 용어집. 향문사.
한국자생식물협회. 2003. 우리꽃 530종---2002년 자생식물 생산자연보.
한국작물학회. 1995. 작물학 용어집. 한국작물학회.